



# 화려함 단아함 '현금풍류'에 빠지다

국립민속국악원의 토요국악초대석 풍류마루에서는 아정한 거문고 무대를 만난다. 오는 17일 오후 3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이선희의 '현금풍류'이다. 거문고 연주자 이선희는 신패풍의 산조와 줄풍류, 한갑득 산조, 정대석의 산조로 전통주법을 다지며 다수의 독주회를 통해 연주자로서 기반을 닦아왔다.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지도단원으로 재직하며 한갑득류 산조보존회 회원, 한국거문고 앙상블 이사, 거문고앙상블 탐인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금, 거문고는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구려 때 나라

## 국립민속국악원 토요국악초대석 이선희 초대 줄풍류 등 선배 거문고 정악 '별곡' 등 연주

에서 칠현금을 보내왔는데, 왕산악이 그 모양을 고쳐 곡을 지어내니 검은 학이 날아들어 춤을 추었다하여 이를 현하금이라 불렀으며, 이후 이를 현금 즉 거문고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선희가 선보일 무대는 거문고 정악인 '별곡'을 시작으로, 신패풍의 향재 줄풍류 중 뒷

풍류 가락을 거문고 3중주로 편곡한 '화·현·성'과, 이선희의 독주로 펼쳐질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대표적인 민속악곡을 거문고 합주로 편곡한 '경기도풍류'이다. 이들 곡 중 한갑득류 거문고산조는 화려하면서도 속으로 파고드는 단아한 가락과 깊은 농현이 특징으로 신패풍류와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룬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거문고 앙상블 탐인이 함께 출연해 거문고의 다양한 가락을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 예약 및 문의는 전화(063-620-2324~5) 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전북광역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 기업 등과 협약

오늘 장수군부터 시작 6개 군·50개 기업·기관 등과 체결키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협약은 13일 장수군을 시작으로, 6개 군(진안·임실·부안·순창·무주·고창) 및 50개 기업 및 기관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안셀코리아(주)·장수수양원·(주)피코바이오·영농조합법인 애농 등 50개 기업대표 및 인사담당자가 참석해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창업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등을 위한 협약서를 교환한다. 또한 전주고용센터에서 고용정보 및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및 경력단절여성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체는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문화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여성인력은 기업과의 연계는 물론 새일여성인턴, 기업환경 개선,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윤애 센터장은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 여성인력 육성 및 직업마인드 교육을 통해 기업체와 원활한 구인·구직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12일 전북연극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직접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느껴 사과하고 있다.

## "성희롱 사태 책임 통감"

### 전북연극협회, 미투 관련 비대위 구성 '재발방지 나설 것'

최근 불거진 미투와 관련, 전북연극협회가 거듭 사과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태 재발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연극협회는 12일 공식입장을 내고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협회 전 구성원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구성원은 과거부터 행해진 불합리하고 부당한 공연작업 행태에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자정결의를 다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자는 취지로 추가 피해사례 여부 및 재발방지 대책, 해체 극단의 구성원 구제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이를 위한 조사 및 방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전북연극협회 긴급총회에서 추천한 5인 외에 3인을 추가, 전북연극협회 이사 및 임원을 배제한 일반 연극인들로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협회 차기 총회에 한하며 이후 차기 총회를 거쳐 재구성한다. 위원회는 총 2개 분과(진상조사분과·실질조사분과)로 운영된다. 진상조사분과는 조사를 통해 인지하고 분별한 성폭력과 관련 가해연극인을 협회에 통보한다. 실질조사분과는 전북의 각 극단을 방문해 피해사실 신고를 위한 청구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올바른 연극작업의 환경 구성을 위해 전 성원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협회 영역 내에서 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따뜻한 위로와 희망 건넨 말 한마디 '삶愛'

### 엠바오사랑병원 개원 20주년 '람곡 하수정 초대전' 열어

엠바오사랑병원이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12~28일 본원 예매실에서 '람곡 하수정 초대전'을 개최한다. 전시작들은 '삶愛' '술결이 바람 될 때' '참 멋지구나 그 흔적들' '끝이 있음에 되돌아 볼 수 있지' 등의 문구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건넨다. 작가의 작품은 한가로운 일상의 삶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남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애써 찾아내고 기괴함을 행하기보다 남들도 다 아는 것을 곱사혀 표현하는 것이 오래두고 볼수록 좋다는 이유에서다. 하 작가는 초대전에 응한 배경을 두고 "이번 전시는 잔잔한 일상에 작은 변화를



선사했다"며 "보통은 전시공간으로 갤러리를 선호하지만, 엠바오사랑병원은 서울 광혜문에 이은 두 번째 우리나라의 근대식 병원이자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그러면서 이번 전시엔 "인문학에 일가견이 있는 엠바오사랑병원 김관수 이사장이 문구를 제안해 와 이를 작품에 반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은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의전담교수는 "람곡 선생에게는 부정을 긍정으로 환원하는 힘이 있다. 세상만물에 존재하는 양면성을 인정하고 합일을 추구하려는 그의 태도는 화해와 상생으로 귀결된다"며 "여기에는 주어진 상황을 순히 받아들이는 그의 생활철학이 담겨있다"고 전시를 소개했다. 원장 윤옥희 원장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을 남겼다"며 "의학으로 섬겼던 환우 분들의 유한했던 삶을 예술작품으로 잇대어 영원한 삶에 대한 꿈으로 이어본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개막일 14일 오전 11시, 문의 230-5300.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